

08 2027학년도 학과·계열

진로가 안 정해졌을 때

그것이 불리한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불리한가	3
03 그래서 무엇을	4
04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제도가 열어 둔 길 다섯 — 무전공만 **11,974명**입니다
- ◆ 「안 정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릅니다 — 불리한 쪽은 뒤엎겠습니다
- ◆ 수시 세 갈래 가운데 둘은 진로를 아예 안 봅니다
- ◆ 싫은 것부터 지우는 좁히기 차례 다섯 · 점검표 여덟

01 · 먼저 사실부터

제도가 길을 여럿 두었습니다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고3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오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제도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제도가 열어 둔 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엇	규모	언제 정하나
무전공(유형1)	4,822명	입학 뒤 학교 안에서 고릅니다
무전공(유형2)	7,152명	입학 뒤 그 묶음 안에서
학부 모집	—	1~2년 뒤 전공 선택
복수전공·부전공	—	입학 뒤 더합니다
전과	—	바꿉니다 — 문은 좁습니다

무전공만 11,974명입니다. 적은 자리가 아닙니다. 「정하고 오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로가 안 정해진 것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해지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건 다음 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복수전공·전과 제도는 대학 학칙에 따르며 대학마다 다릅니다.

02 · 무엇이 불리한가

「안 정한 것」 과 「안 한 것」 은 다릅니다

여기가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둘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 정한 것	안 한 것
무엇	진로가 하나로 안 좁혀졌습니다	파고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여러 갈래에 흔적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학종에서	대체로 괜찮습니다	불리합니다
면접에서	바뀐 까닭을 말하면 됩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학종이 보는 것은 「일관성」 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사람인가」 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바뀌어도 바뀐 까닭이 보이면 그것도 읽힙니다. 실제로 고1에 정한 진로가 끝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고, 대학도 그것을 압니다.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안 파고든 3년입니다. 이걸 진로가 정해졌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미있는 것을 하나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나중에 진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파고든 방식이 남고, 그게 읽힙니다.

전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학종(30,468명) — 진로보다 **깊이**를 봅니다. 안 정해도 됩니다.
교과(26,958명) — 내신만 셉니다. **진로와 무관합니다**.
논술(9,314명) — 그날 답안만 봅니다. **역시 무관합니다**.

즉 수시 세 갈래 가운데 둘은 진로를 아예 안 봅니다. 「진로가 없어서 수시를 못 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학종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03 · 그래서 무엇을

줍히는 차례

진로를 정하려 애쓰는 대신 줍혀 가는 편이 실제로 잘 됩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싫은 것부터 지웁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알기 쉽습니다
2	재미있었던 수업을 적습니다	과목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었는지
3	그 결의 학과들을 찾습니다	이름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4	편제표를 읽어 봅니다	4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
5	그래도 안 줍혀지면 무전공을 봅니다	대학에서 정하는 길입니다

1번이 의외로 잘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안 떠올라도 「이건 아니다」는 대개 압니다. 지워 나가면 남는 것이 보입니다.

2번에서 「어떤 순간」이 중요합니다. 「수학이 좋다」보다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질 때가 좋다」가 훨씬 쓸모 있습니다. 뒤엎것으로는 수학·통계·공학·회계까지 이어집니다.

진로가 안 정해졌을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싫은 것** 을 적어 보았는가

- ☐ 3년 동안 **재미있었던 순간** 을 적어 보았는가

- ☐ 그게 **어떤 종류의 재미** 였는지 말로 풀어 보았는가

- ☐ 생활기록부에 **파고든 흔적** 이 하나라도 있는가

- ☐ 그 흔적이 **어느 학과와 이어지는지** 찾아보았는가

- ☐ **무전공** 이 어떤 자리인지 알아보았는가

- ☐ 무전공이라면 **배정 방식** 을 확인했는가

- ☐ **교과·논술** 은 진로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넷째가 「아니오」라면 **거기부터**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파고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3이라면 남은 학기 수업에서라도 하나를 잡으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검사나 진로 컨설팅을 서둘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지금 성향을 알려 줄 뿐 진로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정한 것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책 몇 권과 그 분야 사람과 이야기해 볼 기회입니다. 그쪽이 훨씬 정확합니다.

04 · 자주 묻는 것

진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생기부의 진로희망이 바뀌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맞춰 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진로희망이 3년 내내 같은데 **활동은 그것과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 둔 진로가 형식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바뀐 흐름이 활동에 보이면** 그건 읽힙니다. 「A를 하다가 B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옮겨 갔다」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것을 적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물으면 **바뀐 까닭을** 말하면 그만입니다.

Q. 일단 취업 잘 되는 과로 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4년 뒤 취업 시장을 지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잘 되는 분야가 4년 뒤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유망**」으로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계산입니다.

둘째, **안 맞는 전공은 4년이 깁니다.** 학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취업에도 불리해집니다. 취업을 보고 골랐는데 취업에 불리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맞는 것 여럿을 먼저 추리고, 그 안에서 전망을 보십시오. 전망부터 보고 맞는지 나중에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진로가 안 정해진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안 파고든 3년**이고, 그 둘은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제도와 모집 규모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이며, 나머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진로나 취업 전망을 예측하지 않습니다.